

노관규 순천시장, 유럽서 '원도심 르네상스 구상' 구체화

'제2회 랍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참석차 프랑스 등 방문 차없는 바르셀로나 놀고·자전거 타고·걷기 좋은 미래 구상

순천시는 노관규 시장이 스페인과 프랑스 등 국의 선진지에서 순천정원박람회 이후 일류 순천 구현과 도시 미래를 구체화할 방안 마련에 나섰다. 8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노 시장은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프랑스 아미앵에서 열리는 '제2회 랍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참석한다. 이와 함께 보행자와 광장 중심의 혁신 도시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프랑스 파리의 정책 사례를 통해 시정 현안과의 접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7일 첫 방문지는 '슈퍼블록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을 획기적으로 혁신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였다.

슈퍼블록 내 거리는 아스팔트 도로 위 자동차 대신 뛰노는 아이들, 자전거를 타고 교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리 한가운데 조성된 놀이

터와 광장에서 휴식하는 사람들이었다. 차도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닌 시민이었다고 노 시장은 밝혔다.

슈퍼블록은 바르셀로나 도시구성의 기본 블록 단위 만사나(Manzana, 블록) 9개를 합쳐 형성한 묶음 단위로, 가로세로 400m 길이에 약 5000~6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권이다.

주목할 점은 슈퍼블록 구역 내 거리의 거주민과 지역 상인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 통행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이다. 일반 차량은 진입 불가하며 진입 차량은 시속 10km 이하로 운행해야만 한다.

슈퍼블록 프로젝트를 시행한 이후 바르셀로나는 도심 교통난 해소는 물론 사고율도 낮아졌으며, 도로는 놀이터와 공원이 돼 시민들은 여유 있는 삶의 공간을 되찾았다.

바르셀로나는 슈퍼블록을 확대 적용해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녹지축의 교차점에 '광장'을 형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살피며 "바르셀로나와 순천은 도시 여건이 엄연히 다르다. 대도시를 그대로 흉내 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상상력으로 도시의 판을 바꿔내야만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자동차를 편하게 해주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자전거 타고, 걷기 좋게 만드는 획기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 중인 순천시는 거리가 삶으로 가득 찬 도시를 만들어 내고자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신축 중인 신청사를 공무원들의 근무 공간에서 확장해 시민 중심의 공공청사로 건립하고, 시민광장을 조성해 중앙시장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육천까지 연계해 원도심을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방문해 걷고 있는 노관규 순천시장 일행.

문화와 휴식의 중심지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원도심을 사람이 모이는 새로운 중심점으로 조성해 도심 곳곳에 광장 문화가 확산하는 일류 순천의 모습을 꿈꾸고 있다.

노 시장 일행은 '슈퍼블록' 외에도 '22@재생 혁신지구' 등을 살펴보고 8일부터 10일까지, 파리 아미앵에서 열리는 '제2회 랍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6월은 탐스러운 초록 매실 영그는 시절



빛과 별의 도시, 광양의 유월은 탐스럽게 영글어 가는 싱그러움 초록 매실을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이다. 광양은 정오의 햇살처럼 따뜻한 빛과 백운산 맑은 공기, 풍부한 섬진강 수량 등 매실 재배 조건을 두루 갖춘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다.

광양매실은 지역특산물 부분에서 8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에 선정될 만큼 소비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매화가 피는 봄이면 앞다투어 몰려들었던 상춘객들이 광양매화마을을 있고 있는 동안도 매실 농가는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껏 푸른 보약을 가꾼다.

매실은 갈증과 설사를 멈추게 하고 근육과 맥박을 활기치게 한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갈증 처방으로 동의보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매실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 필수 아이템이다.

전국 매실 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광양은 매실을 활용한 농축액, 장아찌, 된장, 고추장 등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다.

광양=김현근기자

드론중심도시 고흥, 섬 지역 순찰 치안드론 본실증 '순항'



여수시, 전문자격 취득 지원 '청년희망학교' 참여자 모집

여수시가 미취업 지역청년에게 전문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희망학교'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지역 내 청년들이 관심분야 교육을 통해 취·창업을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사회 진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격취득 과정뿐 아니라 취득비 일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격취득 분야는 ▲조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사 1종 ▲바리스타 2급으로 과정별 각 15명 정원으로 운영된다. 운영기간은 7~8월까지이며 드론은 60시간·바리스타는 40시간 1일 최대 4시간 교육이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오는 30일까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이메일(bdh@ccei.kr)·우편·방문 중 하나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김현근기자

주요기능 작동 및 운영시스템 점검

고흥군이 지난 6월 8일 '섬 지역 치안드론 운용 통합체계 개발사업'의 4차 본실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섬 지역 치안드론 운용 통합체계 개발사업은 경찰관수가 없는 도서 지역에 상시 순찰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한 드론과 운용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순천대학교가 사업을 주관하고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전남경찰청, 고흥경찰서, 대한항공, 전남테크노파크가 공동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실증에서는 자체 개발된 치안드론 탑재장비 주요기능(경광등, 탐조등, 주간·열상 카메라 등)에 대한 작동수행 여부를 점검하고,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이 고흥군 관제센터에 송출이 잘 되는지를 확인했다.

특히, 드론 촬영 영상이 군 관제센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것은 사업의 마지막 단계이며, 치안드론은 몇 차례의 실증을 더 거친 후, 섬 지역 치안 현장에 투입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도양읍 상·하화도와 득량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들의 노력으로 사업의 마지막 단계까지 순조롭게 올 수 있었다"며, "두 달여 남은 기간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해 전국 섬 지역에 치안드론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군,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방안 아이디어 공모

보성군은 오는 2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널리 알리고 모금된 기부금 활용 사업 발굴을 위해 기부사업 아이디어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다.

아이디어는 이메일, 우편·방문 접수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실무자 심사와 보성군 고향사랑기부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결과는 오는 7월 중 발표한다.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대상 1명 30만 원, 우수 2명 각 20만 원, 장려 8명 각 10만 원의 부상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보성=김덕순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군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